



청년예술인들 위한 '공유 공간'

청년예술인에게 '예술'이란 꿈을 이루고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다. 전시 등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로 예전보다는 활기를 띠지 못하는 모습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을 대어해 주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최근 ㈜엔솔아트엔터테인먼트(대표 정다운)가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5번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쪼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문을 연 이곳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예술인들이 공간을 공유하며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다.

2019년 설립된 ㈜엔솔아트엔터테인먼트는 지역 청년예술인이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청년예술인들을 위해 '광장' 전, '오늘은 카페에서' 전 등을 진행했고, 밴드팀을 초대해 '오늘은 카페에서' 시리즈 공연도 선보였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의 명칭은 '허니컴 공간 공유 프로젝트'다.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돼 공방이나 작업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된 작가들을 위해 마음 편히 원데이클래스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사무실을 쪼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크고 넓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마련돼 있어 공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 한쪽 벽은 아기자기한 염서들과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 눈길을 끌며, 미니테이블, 조명, 거울

엔솔아트엔터테인먼트

'허니컴 공간공유 프로젝트'

미술·공예 활동...플리마켓도

등도 구비돼 있다.

캔들, 석고방향제, 디퓨저, 플라워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준비했지만, 함께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필요한 시간에 따라 전

화(010-4277-6750)로 예약할 수 있다. 사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다.

정다운 대표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펼칠 공간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사무실을 나누기로 했다"며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작가들에 힘이되기 위해 원데이클래스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엔솔아트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 동구 동명동 벨라151에서 플리마켓을 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만의 감성과 감각을 담은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엔솔아트엔터테인먼트는 광주시 동구 남동에 청년예술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방을 마련했다.



호수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천세진 시인, 장편소설 '이야기꾼 미로' 펴내

어느 날 아침 짙은 안개 속에서 '미로'라는 존재가 나타난다. 미로는 호수세계에서 왔는데, 그곳은 문자가 없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이 따로 존재한다. 모든 만물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이들은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야기꾼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중요하게 인식한다.

문화비평가인 천세진 시인이 장편소설 '이야기꾼 미로' (교유서각)를 펴냈다. 시인이지만 이야기의 힘을 믿는 작가는 호수 세계 이야기꾼을 통해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작은 호수마을에 사는 미로는 엄마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미로는 마을의 하나뿐인 이야기꾼 '구루' 할아버지에게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움호수라고 명명된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로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고, 호수세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구루 할아버지와 여행을 떠난다.

"살아 있는 모든 건 이야기를 갖고 있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야기를 갖고 있지. 세상에 죽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

이는 것뿐이야."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난 미로는 꽃과 나무, 버섯 등이 품고 있는 무수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움호수에 당도해 엄마를 만나게 된다.

한편의 동화 같기도 한 소설은 맑은 감성과 서정적 서사를 담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환상적인 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읽어도 무방할 만큼 우화적 특징을 담고 있다. 소설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이자,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이기호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천세진은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이고 목소리마다 자기 삶을 서사화하고 그를 드러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작가이다"며 "하나의 시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고 그것이 내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소설을 한 편의 판타지로 읽어도 무방하리라"고 평한다.

한편 천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시집 '순간의 켈리', '풍경도둑'과 문화비평서 '어제를 표절했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어린이·청소년 영화강사 양성교육

지역의 부족한 영상영화 강사들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는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영화교육 강사의 부족함을 인식, 지역에서는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영화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함께하는 지역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허브 지원사업 중 하나다.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총 4달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현직 교육교사들의 네트워크인 '광주교사영상모임 참네모'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모집은 영화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시나리오 집필 능력이 있는 지역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커리큘럼은 모집 이후 7월 중 수강생들과 참네모 교사들이 교육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아이들과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



김도영 작가 개인전이 오는 7월11일까지 드영미술관에서 열린다.

"꼬아보고 접어보고...신문지로 재밌게 작업"

김도영 '시(詩)적인 삶의 여정' 전, 7월11일까지 드영미술관

서양화가 김도영 작가에게 그림은 '그리움'과 동일하다. 작품을 그릴 때마다 늘 사랑으로 감싸줬던 부모님과 행복했던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화사하고 서정적인, 때론 동화적 느낌도 나는 그녀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꽃과 향아리는 어린 시절 언젠가 꽃을 줘주었던 아버지와 보물상자처럼 향아리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꺼내주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자유분방하게 이어져 온 목을 의탁하는 '새'는 작가 자신을 나타낸다.

김도영 작가 개인전 '시(詩)적인 삶의 여정'이 오는 7월11일까지 드영미술관 1·2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난 2018년 무등산 자락에 드영미술관을 오픈하고 청년작가 기획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김 작가는 2018년 미술관 정식 개관 전 진행했던 '드영, 무등에 피어나다' 전 이후 3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1전시실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해왔던 스타일의 작품이, 2전시실에서는 색다른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 걸렸다.

2전시실에서 만나는 작품은 100호 대작 'My Utopia' 등 지난해부터 '신문지'를 활용해 새롭게 시도해 본 것들이다. 기사, 광고, 사진, 일러스트 등이 어우러진 신문지는 훌륭한 작품 재료가 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시도하며 한 작품 한 작품 완성해나갔다.

"코로나 19로 작업실이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지면서 신문을 더 자주 보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문화 관련 기사나 코로나 기사를 꼼꼼히

보는 데 그쳤는데 어느 순간 신문지에서 수많은 '색'과 다채로운 '글자 모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문지로 작업을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시도를 해봤고, 제 유희 작업과 매치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지를 접어 화면에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어 1mm 정도로 가늘게 잘라 캔버스에 일일이 부착했다. 때론 의도가, 때론 우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색감과 화면 구성이 '또 다른' 조형성으로 다가왔고 다양한 시도로 이어졌다.

얇게 자른 신문지 가닥을 꼬아보기도, 딱지처럼 접어보기도 하고 향아리, 새 등의 곡선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색실을 활용했다. 또 꽃그림의 미묘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한지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오브제들을 추가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밖에 유화 그림과 신문지 작업을 화면에 동등하게 배치하기도 하고, 그림을 바닥에 감추고 신문지 작업을 전면이 부각시키는 등 변화도 모색했다.

"재료에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결국 제 그림의 주제는 과거의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들이에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요. 제 자신이 작품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는데, 그림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김 작가는 기존 유화 작업과 함께 신문지 작품도 대작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또 미술관을 지을 때 모아둔 자투리 나무들을 활용해 또 다른 시도도 펼쳐볼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코로나 블루 극복 '위드콘서트'

광주첼로아카데미 29일 광주문화공원 김넷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첼로아카데미(단장 문맹권)는 샘 음악 치료센터(센터장 김자현)와 함께 'With concert (위드 콘서트)'를 선보인다.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문화공원 김넷과 2층.

먼저 박지호와 최필립이 하이든 '교향곡 제 94번 '놀람'',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를 들려주며, 이준형은 동요 '산 너머 마을'을 부른다.

이어 정선규와 이준형이 동요 '구름과 숲'을 무대에 올리며, 김전영·박지호·이태환·정선규는 이탈리아 민요 '푸니쿨라 푸니쿨라'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준비했다.

이날 함께 무대에 오르는 첼로아카데미는 하이



박지호

정선규

든 'Aus dem Kaiser', 차이코프스키 'Orthodox Choral', 리아도프 'Russian Song'을 비롯해 이지수 편곡의 '아리랑 랩소디' 등을 선사한다. 문의 010-7142-7227.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